

序文

我國의 氏族制度는 世界에 冠絕하는 禮俗文化의 典型이라 할 수 있으니 氏族制度가 存續하는 限族譜란 것이 없지 못할 것이며 만약 族譜가 없다면 氏族的系統分派를 紀傳할 길이 없을 것이니 氏族制度와 族譜는 正히 唇齒의 關係라 할 것이다

우리 族譜의 歷史는 十灘公이 大宗譜를 編刊하신 것이 我門族譜의 嘴矢가 되었으며 그 後 純祖甲戌 哲宗癸亥 高宗甲辰과 光復後 乙未年에 各各館洞派譜로 刊行되었으니 이는 人口增加에 조차 簡明正確을 取한 것으로 생각된다

古昔의 族譜法本旨가 人員分派를 可識圈內로 制定함으로써 精明을 期하고 誤謬를 避한것으로 알고 있으니 우리의 後代에도 모름지기 이 原則에 依據하여 修譜함이 마땅할 것이다

往昔을 回念컨대 先世의 文德行義와 清慎守操가 綿綿相傳하여 一世의 模楷에 足하였으나 世道가 陵夷된 今日에는 우리 館洞派의 為先思想이 解弛되고 宗族間交流가 稀少하여 거이 路人에 不遠하니 참으로 遺憾스러운 일이다

今次修譜와 爲先事業을 契機하여 宗族間交誼가 增進되고 宗中과도 紐帶를  
가지게된 것은 진실로 多幸한 일이라 할것이니 이제부터 從來의 無關心  
을 버리고 大加振作하여 崇祖敦宗에 協心共力하여 先德守護에 相互戒勉을  
다짐하는 바이다

檀紀四千三百十五年壬戌

後孫溥承謹識

